

# 그래피티·하이퍼팝...전통 예술에 반기를 든다

골드윈·HEAG '그래피티' 작가  
가장 큰 매력은 "힙하다는 것"

김나라연 'Hyper Industry' 전  
패션과 하이퍼팝 음악 콜라보

인류의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찬미(讚美)는 예술을 탄생시켰다. 비즈니스의 자태 등에는 고전적 예술의 위용이 깃들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곧바로 '예술적'으로 인식되며 순수예술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이뤄 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고고한 작품만을 예술이라 칭하지 않는 것 같다. 엄숙·진지주의 예술에 반기를 내면서 전통적인 예술과는 다른 미학을 성취해가는 두 분야의 아티스트를 만났다.

"그동안 100여 개 작품을 그려오며 느낀 그래피티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은 '힙하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스프레이를 뿌릴 때면 해방감을 느끼곤 해요. 보통 3~4시간 정도 작업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는데, 완성작을 볼 때면 쾌감을 느낍니다."

최근 광주 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난 골드윈(본명 류금상·40), HEAG(본명 허겸·24) 작가는 양손에 스프레이를 들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악수를 건네자 손에 페인트가 묻었다며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손에 묻은 끈적한 잉크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래피티 아트는 그 발원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독일의 베를린, 미테, 크로이츠베르크 등지에서 가장 활발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골드윈(왼쪽·그래피티 태그네임), HEAG 작가의 모습.

하게 펼쳐져왔다. 불시에 특정 장소에 예술가들이 나타나 작업을 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주를 이루는데, 요즘에는 사전 협의 후 진행되는 '커미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날 작업도 담당 소유주와 협의 후 진행됐다. 조선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허겸 작가는 "공대생이지만 그래피티의 매력에 푹 빠져 많은 창작물들을 그리고 있다"며 "주로 레터링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벽에 수놓는 '와일드 스타일'로 작업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선에서 시작한 그래피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형

태를 갖춰갔다. 골드윈이 창작한 캐릭터 '태구'도 볼 수 있었는데 스누피의 단짝 찰리브라운 의상을 입은 스누피 캐릭터다. 힙한 버킷햇 모자는 서태지 패션을 오마주한 것. 완성된 작품은 담백한 한 면을 형형색색 물들였다.

한편 엄숙·진지주의 예술에 대한 반기는 다다이즘, 슈르리얼리즘 등 문예사조를 거치며 회화계에도 계보를 이어왔다. 키치(Kitsch)아트는 그중에서도 자유분방한 예술로 주목받는 미술 개념이다.

김나라연 작가는 광주에서 활동하며 패션과 하이퍼팝(Hyper pop) 음악을 콜라보하는 아트디렉터, 융복합 디자이너다. 조선대 섬유패션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작가는 현대, 전통의상과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의상 등을 결합해 환경, 젠더 등을 주제에 녹여낸다.

최근 작가는 'Hyper Industry'전을 광주 주안미술관에서 선보였다. 고에너지의 전자음악에 키치한 성질을 가미, 예술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시키는 하이퍼팝 'Faceless', 'Dutch pump'를 창작해 이를 패션쇼에 접목하고 있다.

김나라연 작가는 "전시 취지는 키치와 젠더, 환경에 대한 고민을 담아 하나의 가상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며 "3D 어페일, 유행어 아티스트와 콜라보 등을 통해 기획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작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두 분야의 아티스트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술 지평을 넓히고 있었다. 이들은 '예술은 이렇게 저래야 한다'라는 엄숙·진지주의에 대해 반문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다가왔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기효 작 '썸타III'

## '말라가는 것들의 노래'

지역 청년작가 4인 초대전...29일까지 소암미술관

우리 주위에는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이 많다.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잊혀져가는 것들은 중요한 소재가 된다. 애절어린 시선을 견지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독특한 창작세계를 열어가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말라가는 것들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암미술관(광주시 남구 중앙로 83-1)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청년작가 4인을 초대해 잊혀져가다 잊혀지는 현실의 이면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양호열 소암미술관 학예사는 "누군가에 게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로 치부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향수와 소중한 기억의 단초가 된다"며 "4명의 청년 작가들의 독창적인 시선이 담긴 이번 작품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했던 시간은 물론 대상과의 추억들을 환기하는 매체로 다가온다"고 의미를 말했다.

참여 작가는 김진, 안진석, 이기효, 이소의 등 4명이며 모두 20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들 작가들은 모두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진 작가의 작품은 별빛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표류하는 우주인을 화폭에 담았다. 작가는 다소 이색적인 소재를 매개로 삶에 대한 방황과 낯선 감각을 그렸다. 관람객들은 달나라로 상정되는 아폴로 우주인의 모습 등을 상상할 수 있다.

안진석 작가는 도시 재생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허의 건물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흰색과 검정색의 절제된 표현은 역설적으로 아련한 생각과 의미를 환기한다.

우울의 무게감을 은유의 방식으로 그린 작품들도 있다. 이기효 작가는 물에 젖고 겹쳐진 옷의 세밀한 묘사를 통해 옷이 지닌 추억 속의 아련함을 맹랑클린 분위기로 형상화했다.

회화적 서정성을 담아낸 이소의 작가의 작품은 시들여가는 풀의 모습을 거친 붓질과 간결한 표현을 통해 초경화했다. 마른 풀의 이미지와 의미는 우리의 삶과 병치시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성찰을 요구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 관람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나라연 작가 개인전 'Hyper Industry' 전시장 모습 (주안미술관 홈페이지)

## 광주지역 10개 예술단체 함께 '아트페스티벌'

무용·연극·전시·음악·국악 등 무대  
12~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

광주지역 예술 협회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예술 성찬.

광주예총(회장 임원식)은 광주지역 10개 문화예술 단체의 예술적 성취를 한 자리에 모은 '제14회 아트페스티벌'을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지에서 펼친다. 행사는 공연아트-전시아트 페스티벌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공연아트 페스티벌은 오는 12·13일(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무용, 연극, 전시, 음악, 국악협회 등 소속 단체들의 무대를 볼 수 있다.

12일 광주무용협회(회장 나인숙) 소속 로얄발레단의 '인형요정(The Fairy Doll)'이 막을 연다. 19세기 중반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난감 가게에서 낮 시간동안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이야기로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나 '토이스토리' 등을 연상케 한다. 또 라온예술단은 한국무용 '애환' 등을 선보이는데 강감찬 장군의 설죽과 전설을 모티브 삼은 작품이다.

우리말의 말 맛과 언어사를 기리는 연극 '우리말 글'도 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장이 한글과 영어를 동일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관객들 사이 찬반 파가 갈리는 내용이다.

광주음악협회 소속 광주성악가협회는 5인의 성악가(서재원, 김백호, 임현진 등)를 중심으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지금 이 순간', '여자의 마음', '나는 이 거리의 만능 해결사' 등을 들려준다. 또 현악 4중주 온첸비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등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올린에 이준성, 운지는. 첼로에 김민수 등.

한편 공연아트 페스티벌 이튿날(13일)에는 국악, 연예협회 공연과 축하무대 등이 팡파르를 울린다.



'코리아주니어빅밴드' (광주예총 제공)

광주국악협회는 한국 전통의 정한을 응축하는 '승무', 판소리 공연 '흥보가 중 박 타는 대목'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교방 살풀이'는 한국 전통 민속무용인데 고려-조선시대의 춤사위를 담아냈으며 권영심, 고숙진, 김준영 등이 출연한다.

광주연예협회는 대중가수 김덕진의 공연을 선보인다. '별빛 창가에서', '몰랐네' 등이 울려 퍼질 예정. 가수 신승(태국한인회 가수협회장)은 '그 여인', '아마도', '사랑의 자리'를 부르며, 코리아주니어빅밴드는 'September', '아름다운 밤' 등 재즈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강명진은 전자 바이올린으로 '오리엔 탱고'를, 색소포니스트 위영규(한국색소폰협회 광주지회장)는 '아름다운 강산', 'My way'를 연주한다. 폐막공연은 김영순, 박애화, 함승우가 남도민요 '성주풀이'와 '남한산성', '진도아리랑' 등 창작무용으로 채울 예정이다. 또 서영무용단은 불꽃처럼 앞만 보고 불사르는 정춘의 열정을 춤사위로 형상화한 작품 '춤, 휘'를 선보인다.

아울러 전시아트 페스티벌은 오는 12-23일 광주예총 백련갤러리, 지호갤러리와 14-15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5층), 광주독립영화관(6층)에서 진행된다. 각각 광주문인협회, 광주미술협회, 광주사진협회와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영화인협회가 참여할 예정.

광주전남건축가회는 '도시를 탈출한 다양한 주택 건축의 군상'이라는 주제로 출품한 20인의 작품을 전시한다. 농촌, 대도시 외곽지역 등을 형상화한 건축물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종 교수, 김영란 화가 등 42명 작가의 화문(畫文)을 볼 수 있는 광주문인협회의 시화전도 마련돼 있다.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를 담은 광주미술협회의 전시회도 볼거리. 강대성 외 29명의 원로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끝으로 광주사진협회는 58명 작가의 사진전을 진행하며 광주영화인협회는 포럼을 열어 '건축이 '영화'와 접목한 예를 살펴본다. 동시에 영상장비 전시와 비디오 쇼도 마련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불교의 조각적 해석, 태도, 성찰

이수천 '소품전', 15일까지 메이홀 2층

조각가 이수천은 청소년기에 우연히 만난 한운운의 시로 인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조각가로 활동하게 된 이후에도 한운운의 시와 불교적 사상은 작가 의식과 작업방향에 견인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수천 조각가의 전시회가 메이홀 2층에서 열린다.

7번째 개인적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소품전'. 지난 8월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초창기 자연스럽게 만난 불교의 조각적 해석과 이와 맞물린 정신주의적 태도나 성찰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언급한대로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그의 작업은 불교와 정신세계의 반향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전시작품 중 '깃'과 '출가'는 형상화한 '출가'나, 사찰의 일주문을 이미지화한 듯한 '새벽'이라는 작품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근작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종교성 짙은 작품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담담한 일상의 느낌, 자아 투영적인 이야기를 조형화하는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선불'과 '추모'는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히 펼쳐진 책 위에 놓인 '일기' 작품은 작고 메마른 뼈다귀나 강마른 육체를 연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인화된 존재성, 작가의 자화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수천 작가는 흥남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국내외 그룹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다. 불교미술대전 특선, 대학미전 은상 등을 수상했으며 백제예술대, 성신여대 강사로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